

지역 소식통

김제시,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김제시는 지역 내 저소득층의 주거지원을 위해 LH와 함께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

매입임대주택 사업은 저소득 주민의 주거안정과 자활을 위해 LH가 다가구 주택을 매입하여 시중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으로 계약기간은 2년이며, 최대 9회 연장에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인 2020년 5월 29일 현재 김제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가구원 전부가 무주택자인 가구로 생계·의료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저소득 등록 장애인, 생계·의료·주거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면서 만65세 이상인 고령자,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에 해당되는 세대이다.

올해 김제시는 140세대를 선정할 예정으로 오는 8일부터 12일까지 주민등록이 등재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8월 말~ 9월 초 LH에서 선정결과를 개별통보할 예정이다.

신청접수 및 입주자 선정, 계약체결 등 상세문의는 김제시청 건축과(063-540-3080), LH 콜센터(1600-1004), LH 전북지역본부 콜센터(230-6471~3)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맛집 추천 인증샷 이벤트' 실시

김제시는 시 공식 페이스북(www.facebook.com/gimjocityhall)을 통해 6월 4일부터 12일까지 '김제시 맛집 추천 인증샷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벤트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페이스북 이벤트 댓글에 김제시에 있는 맛집을 방문 후 인증샷과 함께 상호명과 추천 메뉴, 추천 이유 등을 함께 업로드하면 된다. 당첨자 30명에게는 김제시사랑상품권 3만원을 지급한다.

김제시는 시민과의 소통체계 강화를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그림 속의 완주이야기' 만들기

코로나19 극복 일자리사업 참여 문화관광예술인이 지역 관광 홍보 콘텐츠 제작·제공 '완주여행 히치하이커단'... 완주 거주하는 화가·방송작가·문화기획자 협업 조직

전혀 다른 삶을 살아온 화가와 방송작가, 문화기획자가 협업으로 지역 관광홍보 콘텐츠를 제작해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주인공은 완주군에 거주하는 문화기획자 이성식 씨(57)와 김원용 씨(41), 화가 송지호 씨(45)와 정철휘 씨(35), 방송작가 출신 김경화 씨(46) 등 5명. 완주군의 '코로나19 실직자 단기 일자리사업'에 참여하며 지난 4월에 만난 이들은 각자의 재능을 살려 완주여행 가이드를 제시하기로 의기 투합했다.

전문직 5인은 차량을 얻어 타며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를 만들겠다고 이에 팀명도 '완주여행 히치하이커단'이라 정하고, 매주 월요일 기획회의를 통해 완주의 소박한 풍경과 자연의 여유를 만끽할 수 있는 곳을 찾아 '그림 속의 완주 이야기' 시리즈를 엮어가고 있다.

이들은 함께 현장취재와 사진 촬영



을 한 후 방송작가 출신인 김경화 씨가 아름다운 필체로 맛깔스러운 글을 쓰고, '행복을 그리는 화가' 송지호 씨와 '버섯농부 화가' 정철휘 씨가 손에 정겨운 것들을 화폭에 담아내는 것으로 작업을 마무리 된다.

세상에서 가장 멋진 '글과 사진, 그림'의 조화로운 콘텐츠가 완성되면 완주관광 대표 블로그인 '완주여행의 모든 것'(http://blog.naver.com/wanjutour)에 올려 일반인들에게 선보이게 된다.

첫 작품인 완주군 소안면 해월리의 '드림틀 힐링팜'과 7명의 아줌마가 모여 건강한 빵을 만드는 '줍마뜨레' 빵

집 두 곳의 여행지 소개는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최근 선보인 완주군 비봉면 내월리에 있는 '천호마을 돌담길' 편역시 아름다운 풍경의 사진과 그림이 여행객을 유혹하고 있다. 전문직 5인방은 앞으로 올해 7월 말까지 갤러리 카페, 담이 예쁜 마

을, 이색체험마을, 이색빵집, 걷기 좋은 길, 지역별 완주 로컬푸드매장 특징, 색다른 전통시장 체험들을 소개할 예정이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2021년 완주방문의 해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완주여행 히치하이커단'이 구석구석의 이야기를 담아 널리 알리고 있어 감사하다"고 전했다. 더불어 "앞으로 코로나19로 일자리가 단절됐던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김제시, 김제지평선축제 SNS 서포터즈 '지평이' 모집

블로그·페이스북 등 온라인 홍보로 축제 소통창구 기대... 16일까지 30명 선발 예정

김제시는 제22회 김제지평선축제의 재미와 매력을 보여주고 축제 관련 정보를 온라인 중심으로 생생하게 전달할 SNS 서포터즈 '지평이'를 6월 5일부터 6월 16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김제지평선축제 온라인 홍보를 책임질 SNS 서포터즈 '지평이' 선발인원은 30명이며 지원 자격은 김제지평선축제에 관심과 애정이 있고 평소 SNS를 즐기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신청서는 김제지평선축제 공식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이메일

(ps05117@korea.kr)로 제출하고, 모집 결과는 6월 17일에 발표한다.

SNS 서포터즈 '지평이'로 선발되면 18일부터 축제 종료시까지 온라인 홍보대사로서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의 소셜네트워크로 김제지평선축제에 대한 개성 있는 콘텐츠를 게시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사전 홍보 등의 활동을 한다. 축제 종료 후에는 지평이 서포터즈 전원 농특산품을, 우수 서포터즈에게는 소정의 상품도 지급한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김제지평선축제가 코로나19로 맞이한 새 일상에서 대응책을 마련하고 안전한 축제로 개최되는 과정을 온라인을 통해 전달하여 관광객들과 시민들이 안전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는 길잡이가 되어주길 바란다"며, SNS 서포터즈 '지평이'가 개인의 역할을 발휘하여 김제지평선축제만의 매력을 즐겁고 생생하게 전달하길 기대한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신청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대책본부' 운영

완주군이 산림병해충에 총력 대응한다. 4일 완주군은 지난 1일부터 8월 31일까지 3개월간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대책본부'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대책본부는

완주군청 산림녹지과에 설치돼 운영되며, 관내 540km에 조성된 가로수 및 녹지공간 등 1150ha의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을 확

용해 정기방제를 실시하고, 외래병해충 발생 예보와 피해지역에 대한 현장 진단 서비스를 제공한다.

올해, 월동난 조사결과 갈색날개매미충을 비롯해 미국선녀벌레, 꽃매미가 확산 추세로 방제본부는 농업관련 부서와 공동으로 방제활동을 추진한다.

/완주=이종복 기자



김제시는 지난 3일 전북 도청에서 개최한 2020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적극행정 우수 자치단체로 인정받았다.

김제시 '적극행정 최우수상' 수상

전북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 자치단체로 인정

김제시는 도민의 눈 높이에 적격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우수사례 발굴과 확산을 통해 도정의 변화와 혁신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지난 3일 전북도청에서 개최한 2020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적극행정 우수 자치단체로 인정받았다.

이날 경진대회는 1차 서면심사와 2차 2차 전문가 서면심사를 거쳐 선정된 6건의 우수사례가 발표되었으며, 시군 중 김제시가 최우수 의 영광을 차지했다.

김제시는 코로나19로 시작된 사상 초유의 개화 연기와 초·중·고 온라인 수업 전면시행이라는 상황속에서

준비없이 처음 겪는 온라인개학과 원격수업의 어려움을 겪는 관내 다문화, 조손가정과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를 연계한 '온라인 학습지원 & 청년일자리로 一石二鳥' 청년일자리 연계 초등학생 온라인 학습도우미 지원 사례로 심사위원들의 높은 공감을 이끌어 냈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시민이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체감도 높은 우수 사례를 발굴을 위해 다각적인 적극행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경진대회에서 좋은 성과를 거둔 사례처럼 앞으로 시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실행하는 창의적인 적극행정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백구 특장 기계산업 클러스터 관련 최종보고회 성료

김제시는 지난 3일 김제시청 2층 상 황실에서 백구 특장 기계산업 클러스터 조성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허전 부시장과 전북도청 및 유관기관 관계자, 기업인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최종보고회에서는 용역 수행기관인 산업 연구원에서 그동안 연구한 용역결과를 보고했다.

산업연구원 이항구 선임연구원은 특장 기계산업 현황과 전망, 국내유일의 특장차 집적지인 백구특장차단지를 국내 특장 기계산업을 대표하는 혁신 클러스터로 조성하기 위한 기본 전략 및 추진계획을 설명했다. 주요 보고 내용으로 △특장산업 종합지원센터 구축 △특장차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사업기술개발 △ 자기인증센터 확충

등이다. 백구특장차 전문단지는 생산과 인증을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네트워크 체계가 마련된 자기인증센터가 있으며 특장차 제1단지 28개 기업 분양완료 및 제2단지 조성중으로 이번 용역을 통해 특장산업을 미래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고 특장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사업들을 중심으로 예산을 마련해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허전 부시장은 "오늘 최종보고회로 김제시가 명실상부한 특장 집적화 단지의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특장산업의 허브로 육성하여 김제시뿐만 아니라 전북도의 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 넣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